

# 'KREI리porter' 경북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요

- 목 적: 경북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 일 시: 2018년 6월 19일(화) 11:30~
- 장 소: 경북 고령군
- 참 석: 총 21명
  - 경북지회 리porter: 홍용표, 김현원, 김상원, 박용순, 이증명, 최진석, 김영국, 김영식, 임영섭, 최태봉, 김인남, 박재석, 조현구, 정태근, 김병대, 김갑순, 양재웅, 곽동준, 김향빈, 김혜수, 윤석구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30~12:30	점심식사	고령성주축협
12:30~14:40	회의	고령성주축협
14:40~15:00	이동	-
15:00~16:00	견학	최태봉 회원농가 '대가야우럭식품'

## 2. 주요 논의 내용

### ○ 회원농가 견학

- 최태봉 회원농가 '대가야우럭식품'
  -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최태봉 회원농가 '대가야우럭식품'을 방문
  - 국산 콩을 이용해 청국장 및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며, 전통장류 생산방법 체계화 위해 미생물, 곰팡이 관련 연구에 매진
  - 무방부제 및 무색소 제품 생산 원칙을 고수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 국내 발효식품 내의 곰팡이 독소(톡신) 제거와 함께 풍미 개선 등에 노력
- 품질 대비 마케팅 부분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컨설팅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
- 경북도 고부가가치농업인으로 선정, 경북대·영남대·경북농업기술원 등 공동연구개발에 참여
- KREI리porter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리porter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여 우수고객상을 수상

### ○ 농촌 일손부족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김인남: 먼저 상주의 경우 오이농가가 400여 농가 되는데 일손공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잎따기를 하시는 분들은 잎만 따고 줄기 유인하시는 분은 그것만 하시고 요일별로 조를 짜서 운영하며 그분들을 농가에 운송하는 일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소개비, 운송비 부담 없이 실제 일당만 부담합니다. 작년에 해보니 전문팀원의 분업화와 숙련도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써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최태봉: 고령 메론하우스의 경우 하우스 한 동당 하우스 철거하는데, 부직포를 걷는데, 비닐을 벗기는데 얼마 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되어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하는데 농가끼리 경쟁이 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가에 와서 임금경쟁까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인남: 외국인들을 각 농가에서 고용했을 경우 상해사고 시 책임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인력회사에서 조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니 고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외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외국인들도 그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김영국: 상주의 경우 시에서 운송비 지원은 없나요? 또 신청하면 신청하는데로 다 되는지요?

- 김인남: 운송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인력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현구: 경산은 일손이 없어 가족끼리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고 영천도 노동력이 없어 군부대, 시청, 경찰서, 교육청등에 신청해서 대민지원으로 인력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 김영식: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거에는 농장주의 책임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 요즘 안전사고 발생 시 농장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인력수급난에 있어 경산시 같은 경우 대민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관공서에서 대민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요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체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 개인농가에서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일당의 단가도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이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인건비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 두가지 문제에 형평을 맞추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인남: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고용주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그만큼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 김영식: 이런 자리를 빌어 농민도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 최태봉: 차량을 렌트하면 일일 보험을 넣듯이 정부에서 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 김영식: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무방비상태로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인남: 농촌지역의 사고율이 높고 큰 사고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농민은 농업인 안전공제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 김영국: 고령화시대에 대체인력이 필요합니다. 수확기계 같은 것을 작목반이나 개인에게도 지원해주어 돈을 덜 들이고 농사지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농기계임대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고장 시 시간낭비가 많이 됩니다. 노약자, 여성이 운전하기 쉬운 안전한 농기계를 정부에서 투자를 좀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인남: 안전장구를 만드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값싸고 소형화된 기계를 만들려다 보니 안전에 허술해지는 문제가 생겨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 김영국: 사람이 다쳐 발생하는 비용보다 안전장비 비용이 비싸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비용이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갑순: 영양군 같은 경우 시에서 인력지원을 해줘도 일기가 안 맞으면 쓸 수가 없고 집중일손 필요시 기술훈련이 된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 더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단시간에 훈련시키기 어려워니 정부에서 기술훈련을 시켜 농가에 투입시켜주면 좋겠습니다.
- 김향빈: 문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외국인들을 기술교육을 시켜 농가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 김인남: 투입된 노동력이 그 농가 작업의 특성을 알고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갑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많은 돈을 들이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최진석: 포항의 경우 시에서 식대 7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연간 고용하는 농가는 제외하더라도 일반 소농가에게는 정부가 보험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남: 이 보험 건은 농경연에서 연구를 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재용: 저도 보험관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군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해 놓는 겁니다. 위험한 일을 할 경우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일일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시군마다 있다고 합니다.

- 광동준: 창녕군, 달성 쪽은 마늘,양파 과중기와 수확기에 한시적인 인력동원이 필요합니다.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되니 노동의 질이 낮은 인력이 동원됩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약속은 지키는데 외국인들은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타 농가와 임금비교하며 협상을 요구합니다. 일기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갑자기 인건비가 2~3만원 올라갑니다. 지금 거의 80%가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단순노동에서는 안전재해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인력수급 자체 부분과 외국인 인건비도 우리 최저시급을 정하듯이 기준설정이 되어 준다면 농가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력시장도 늘 쓰던 집이 아니면 인력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잘 보여 놓지 않으면 질이 많이 떨어지는 인력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또한 농산물은 가격안정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다음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없이는 아주 곤란합니다. 꼭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파, 마늘 수급조절사업으로 살아왔는 사업이 있었는데 수확시기에 폐기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부하 때문에 그다음 작물이 농사가 안 됩니다. 생산조절수급사업시기를 앞당겨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용표: 울진군에서는 인력을 모아 농가에 지원하고 농협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농가에 인력을 배당해 줍니다. 농가에서는 참주고 점심주고 3만 5천원, 군에서 3만원을 부담합니다. 농협에서 인력수송하고 수송비는 군 부담입니다. 대신에 한 농가당 한 달에 기회는 두 번뿐입니다. 1688에서 하는 정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공무원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진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경북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박용순: 요즘 야산 조수피해가 엄청납니다. 철조망 보조사업이 필요하고 조수 포획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 김인남: 수렵허가를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 총을 쏘면 시군 경계를 넘어 가버려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멧돼지 틀을 시범사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자연보호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문제점은 각 시군단체에서 수렵허가를 내 줄 시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시군간 협조가 안 됩니다. 정부가 강제성을 띄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 ○ 공지사항

- KREI리porter 연찬회가 7월 5일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됩니다. 장소를 바꾸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작년과 같은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농업인의 의견반영을 위해 회칙 21조가 개정되어 청년리porter가 위촉되었습니다. 현재 활동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3. 이모저모

